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7. 여섯째 나팔

2013. 11. 2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9:13~21]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훈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1. 목사님, 결코 쉽지 않은 다섯째 나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섯째 나팔 내용을 살필 차례인데 이 내용도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답: 아마도 다섯째 나팔만큼 어렵겠지요.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이 표현은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금단의 뿔은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에 그 피를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뿐만 아니라 금단 네 뿔에도 바릅니다.(레4:7) 바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금단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아직도 하늘성소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로 표상된 계시가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일어날 심판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팔 계시를 은혜 시기가 끝난 후에 있을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성소봉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답: 사실 하늘성소봉사에 대한 진리는 재림교회가 깨달은 마지막 시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

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계시해주신 히브리서를 주석하는 학자들도 하늘성소에 대한 설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와 관련된 직무입니다. 엄격하게 형식을 따라 말한다면 성소가 없이는 제사장의 직무는 소용이 없는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서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성소에 대한 진리를 거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늘성소봉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표현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소봉사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일곱 나팔을 은혜시기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금단 뿔에서 들린 말씀은 무엇이었지요?

답: 성경을 다시 읽은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계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금단 네 뿔에서 난 음성은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상징적 단어들이 나옵니다. 큰 강 유브라데와 결박한 네 천사는 상징적 표현들이고 놓아주는 것도 상징적인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외친 화화화 중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이고 이제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비록 고통은 당하지 만, 죽이지는 못하게 했는데요, 여섯째 나팔에서는 죽이는 일이 허락됩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전한 음성은 금단 네 뿔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예수께서 성소봉사. 곧 속죄봉사를 하는 동안 있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단은 향을 살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능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음성은 8장1절에 기록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발하여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씀하신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겠지요. 그분이 성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비로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응답의 소리가 계시록 6장에 있는 순교자들이 신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 응답으로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 나팔 계시라고 합니다. 참 좋은 견해인데, 그것은 형벌이 심판이라는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섯째 인을 뺏을 때에 순교자들의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그들을 펴박하여 순교하게 한 세력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시도록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예 형벌의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금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속죄의 기별이 여섯째 나팔에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합당한 이해로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으로 여섯째 나팔 내용이 주어졌다면 여기 기록된 사건이 속죄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답: 이제 살펴봐야지요.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예수께서 성소에서 속죄봉사를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둘째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지시한 말씀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16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강의 물이 마를 때 동방에서 왕이 오는 길이 예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벽을 상징하는데, 큰 강입니다. 그것은 많은 물이지요.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입니다. 이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박되었다는 것은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루시퍼와 관련된 천사들이지요. 루시퍼가 아담을 속이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찬탈했지만 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허락된 기간 동안만 활동하고 허락된 범위의 일만 수행합니다. 욕기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욕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박되었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사실을 나타냅니다.

5. 그들이 왜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답: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테스 강은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을 나타낸다고 했지요. 이 천사들은 이런 곳에서 자기들의 뜻,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제한을 잠시 동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풀어놓으므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천사라는 수에 있어서 7장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과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천사가 아닌가 하는데, 7장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천사는 결박된 천사입니다. 그런데 7장 2절에도 보면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바람을 놓을 때에 일어날 세상의 재난들에 대한 것인데,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천사가 놓이는 것은 그들이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숫자가 같지만 상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같은 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들이 놓이면 세상에 화가 닥칠 것입니다.

6. 결박된 것이 인류를 괴롭게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들이 놓이면 인류가 괴로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답: 일단 그렇지요. 7장의 천사들은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즉 바람을 제한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 천사들은 자신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도록 복음 사업을 도운 천사들이고 여기 천사들은 인류를 살육하는 천사들입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에서는 죽이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위 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이 여섯째 나팔에 상징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7. 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역사적 성취가 있었는지를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답: 목사님이 상당히 다그치는군요. 그런 사실을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야지요. 이 풀려난 천사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년 월 일 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일을 먼저 해야 하겠지요. 이것은 예언적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1일 1년 원칙을 따라 풀이해야 합니다. 년은 360일입니다. 성경의 1년은 한 달을 30일로 하는 12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일입니다. 월은 30일이지요. 일은 하루, 시는 24분의 1일입니다. 이것을 예언 연대 풀이 원칙을 따라 계산하면 360년, 30년, 1년, 시는 15일이 됩니다. 모두 합하면 391년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풀려난 네 천사가 활동하는 기간이 됩니다.

8. 언제부터 391년 15일이 되는 것인데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답: 언제부터라는 것은 다섯째 나팔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하지요. 다섯째 나팔이 1299년부터 1449년까지였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기간은 1449년 이후가 됩니다. 다섯째 나팔에 있었던 연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는 다섯 달 동안 괴롭히는 일을 했지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 군사 행동으로 비잔틴 제국을 침입하여 그들을 괴롭힌 150년간이었는데, 끝나는 때가 144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391년 15일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50년 기간이 끝나는 1449년 7월 27일부터 351년 15일이 시작된다면 끝은 1840년 8월 11일이 됩니다. 이 연대는 이슬람 국가로서 비잔틴 제국을 침략하고 괴롭힌 오토만 제국이 변질된 소위 교회를 파괴하고 없이하면서 통치하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인지를 나타내는 연대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성경학자이던 장로교 목사였던 조시아 리치 목사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 대하여 연구한 끝에 오토만 제국이 1840년 8월에 멸망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예언을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을 믿는 신자들까지도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언은 다 지난 사건들을 설명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2년 후에 닥칠 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리치 목사에게 신문에 발표한 그 해석을 취소하도록 은근히 권했습니다. 예언 해석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찌면 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리치 목사는 결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9.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했군요.(그랬습니다.) 그런데 리치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그 해석을 견지했군요.(그랬지요.) 그 해석이 맞았습니까?

답: 이제 이야기를 마자 들어보아야지요. 당시에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예언조롱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 일당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내용을 역사적 현실에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모두 지나간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식은 찬 잿더미에서 이것저것 끄집어내어서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다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리치 목사가 1838년에 오토만 제국이 1840년 8월에 망할 것이라고 여섯째 나팔 내용을 해석하여 신문에 발표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조롱회 회원들도 긴장했습니다. 지나간 사건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앞으로 있을 일을 성경을 해석하여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믿는 진영이나 조롱하는 진영이나 리치 목사의 해석은 모두 긴장하게 했습니다.

10.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현장에 있었어도 긴장했겠습니까. 만일 그 예언이 틀리게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이 사실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그렇지요.) 리치 목사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답: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나간 역사의 해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틀림없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그는 한술 더 떠서 1840년 8월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8월이 되어서 그 날짜가 11일이라고 발표하였다. 당시에 기록한 기록을 잠깐 인용해보지요.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Josiah Litch, in Signs of the Times, and Expositor of Prophecy, Aug. 1. 1840) 1840년 미국의 사인스 오브 타임스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고 리치 목사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위험한 글을 쓰느냐고 불평이었고, 예언조롱회 회원들은 더욱 긴장하면서 만일 그 예언이 엉터리가 되면 단단히 그들의 해석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공격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과연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제국은 사절들을 보내어 유럽의 기독교 동맹국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써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아래 들어가게 되어서 391년 15일 허락된 기간이 끝날 때에 국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11. 그러면 예언조롱회는 어떻게 되었으며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예언 해석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리치 목사의 해석으로 재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조롱회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구나 하고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다고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역사적 성취가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13:19)하신 예언의 목적을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은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보조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언 연구는 하나마나입니다.

12. 목사님, 그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언 해석에 급급해서 예언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고 그것이 역사에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을 알게 되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요. 애청자들께서도 이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도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

사적 사건의 예언은 너무나 확실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391년 15일을 조금 달리 설명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토만 군사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1453년에서 1844년까지로 보는 견해입니다. 오토만 세력은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일을 시작한 1453년부터 그것을 금지한 해인 1844년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자 윌리엄 셰이 박사의 연구입니다. 이 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리치 목사의 해석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로 하여 성경을 확신하는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된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3. 예,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하는 해석은 예언조롱회에서 조롱하는 같은 조롱을 할 수 있지요. 물론 그 해석이 합당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리치 목사의 해석과 성취는 예언조롱회를 해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대에 대한 해석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그 연대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답: 그렇군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391년간 사람을 살해하도록 되었으니 그 죽은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터어키 여러 도시에 시체로 성벽을 쌓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 터어키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기독교인들을 여러 해 동안 실제로 살해한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이기지 못해 신앙을 포기했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나팔 계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나팔 계시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 세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특히 배교한 기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로마교이거나 정교이거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신앙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에서 푸른 풀과 수목들 즉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여섯째 나팔에서도 여전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미 지하교회가 되었거든요. 물론 1517년을 넘어가면서 종교개혁 세력이 표면화되긴 했지만 그들이 교권 세력에게 핍박을 면한 것은 아마도 1700년대가 되었을 때일는지 모릅니다.

14. 그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답: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라는 찬미를 쓴 사람이 슈몰크 목사님인데 그 찬송을 쓰게 된 이유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1672에서 1737년까지 생존한 종교개혁교회 목사였거든요. 그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찬미가의 배경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5. 목사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배교의 시대에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 배교한 교회를 심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코 배교하는 일이 없이 오직 진리를 따라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